

1) 타진文化의 兎唇

베라크루스 출토 뉘헨 국립民族學博物館

2) 片 麻 痺

베르린 民族學博物館(다아렘)

콜롬버스 以前 文化에 있어서는 未開社會의 醫術과 마찬가지로 病과 싸우기 위해서 宗教와 魔術이 複雜하게 뒤섞여 있었다.

宗教가 關係를 가지는 것은 어떤 神들이 病의 原因이 되며, 다른한편 神들이 그 信者를 病에서 지키기 때문이었다. 魔術이 관계하는 것은 적이나 원수의 魔術에서 생긴다고 생각되는 많은 病은 魔術에 의하지 않으면 낫지 않기 때문이었다. 科學의 關係를 가지는 것은 현대에도 그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食물, 광물, 治療법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魔術이나 宗教를 科學보다도 중히 여기고 있었던것은 의심할바 없다.

타진文化의 兎唇을 가진 頭部像이나 片麻痺를 나타내는 (아마도 안면 신경마비) 頭部像은 魔術의 힘을 빌려 질병에서 海방할려는 祈願의 대상으로 생각되어진다.



#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 · 종로구 송인동 1081

전 화 93 - 6671